



미국 플로리다주, 최저임금 인상 법안 통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현지 시간 기준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된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Joe Biden)이 연임을 시도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현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 언론은 바이든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잡음 없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전국적인 수준으로 제시한 공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 이 중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주정부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관련 법안의 지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한화 약 1만 6,000 원)로 인상하는 공약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대선 때 해당 공약과 비슷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과 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이를 통과시킨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하며 승리한 지역인데, 함께 진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인 주 헌법 2차 개정안(Amendment 2)도 6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²⁾ 이

1) 편집자 주: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홍성훈(2020),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 공약」, 『국제노동브리프』 18(11), pp.71~82를 참조.

2) The Washington Post(2020.11.3), "Florida votes to raise minimum wage to \$15 an hour",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현지 언론의 반응 및 분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운동(Fight for \$15)과 주요 정치적 국면

이번 플로리다주에서의 투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운동(Fight for \$15)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2012년 뉴욕시에서 수백 명의 패스트푸드점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³⁾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버몬트(Vermont)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2015년 경부터 해당 운동에 지지를 표명하고 월마트(Walmart) 등의 대기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운동은 현재 설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실제 노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즉각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운동은 실제로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성과를 보여 왔다.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뉴욕시(New York City), 메릴랜드주(Maryland), 뉴저지주(New Jersey), 일리노이주(Illinois), 코네티컷주(Connecticut) 등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향후 수 년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15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⁵⁾ 다만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주정부 수준의 최저임금 법안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당

Retrieved on November 7th,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11/04/florida-amendment-2-minimum-wage/>

3) Fight for \$15, <https://fightfor15.org/about-us/>

4) The Washington Post(2016.7.19), “Democrats back \$15 minimum wage, but stalemate on Social Security”,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post-politics/wp/2016/07/09/democrats-back-15-minimum-wage-but-stalemate-on-social-security/?noredirect=on>

5)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2020), “State Minimum Wages”, by State,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state-minimum-wage-chart.aspx>

최저임금 15달러 운동의 성과는 아직 진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⁶⁾

연방정부 수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결정된다면, 해당 운동은 전국적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는 각 주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연방정부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실제로 바이든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웹사이트인 빌드백베터(BuildBackBetter)에서는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단지 그들(노동자)을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자”(“As Biden said, let’s not just praise them, let’s pay them”)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⁷⁾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⁸⁾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당 가능성은 공화당 또는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의 협조 없이 현실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 또한 존재한다.⁹⁾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의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하였고, 민주당은 48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남은 의석은 조지아(Georgia)주의 2석인데, 조지아주는 한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득표율 기준 1, 2위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결선 경합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 상원의원들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예측으로는 2석 모두 공화당에 돌아가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1석씩 나누어 가질 것이 유력하다. 그러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¹⁰⁾

6) U.S. Department of Labor(2020), “State Minimum Wage Laws”,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dol.gov/agencies/whd/minimum-wage/state>

7) BuildBackBetter(2020), “Economic Recovery: the Biden-Harris Jobs and Economic Recovery Plan for Working Families”,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buildbackbetter.gov/priorities/economic-recovery/>

8) CNBC(2020.11.9), “The US is closer than ever to a \$15 federal minimum wage after Biden win”,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cnbc.com/2020/11/09/the-us-is-closer-to-a-15-federal-minimum-wage-after-biden-win->, html#:~:text=In%202019%2C%20the%20U.S.%20House,%2415%20an%20hour%20by%202025.&text=The%20bill%20has%20more%20support%20than%20ever%20to%20become%20law

9) The Guardian(2020.11.23), “Fight for \$15 minimum wage boosted in Florida but Biden faces tough task”,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nov/23/fight-for-15-minimum-wage-florida-biden>

10) The New York Times(2020.11.3), “Election Results 2020”, Retrieved on November 28th,

이는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연방정부 조달업체들(federal contractors)에 한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명령할 수 있지만,¹¹⁾ 이는 연방정부와 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국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경우, 남은 가능성은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주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일부 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주 헌법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직접선거나 과반수 찬성이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다음 주요 선거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기에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사례는 이 같은 정치적 배경하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투표로서 통과시킨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 플로리다주의 최저임금 인상

미국의 다른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

2020,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11/03/us/elections/results-senate.html?action=click&pgtype=Article&state=default&module=styln-elections-2020®ion=TOP_BANNER&context=election_recirc

11) Market Watch(2020.11.18), “Joe Biden wants a \$15 minimum wage — here’s what’s standing in his way”,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marketwatch.com/story/joe-biden-wants-a-15-minimum-wage-heres-whats-standing-in-his-way-11605015609>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된 미국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많은 유색인종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성적·인종적 차별에 의한 임금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임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¹²⁾ 특히나 관광지가 많은 플로리다주에는 요식·숙박업 및 유흥업에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팬데믹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중소기업인 및 대기업과 보수적 성향을 띠는 시민들과는 대비된다. 이들에 따르면, 급격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 운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¹³⁾ 결과적으로 이는 사업장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여지를 더욱 줄이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줄고, 노동시간 감소로 실제 임금 수준 또한 감소하여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보수적 주장은 플로리다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플로리다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러한 견해 차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 정치적인 대립은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된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해당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은 주 최저임금을 향후 몇 년에 걸쳐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61%의 찬성률(전체 유효표:

12) Brookings Institute(2020.6.4), "Examining Options to Boost Essential Worker Wages during the Pandemic",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20/06/04/examining-options-to-boost-essential-worker-wages-during-the-pandemic/>

13) Orlando Sentinel(2020.10.3), "Amendment 2 would lift millions of Floridians out of poverty, but Big Business says at the cost of hurting employers",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orlandosentinel.com/politics/2020-election/os-ne-2020-general-election-amendment-2-20201001-mswzmkigvvaarcmyako3pco4u-story.html>

14) Inc.com(March, 2016), "Beware the Consequences of a \$15 Minimum Wage: Those who say raising the minimum wage will have no effect on employment are dreaming",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www.inc.com/magazine/201603/norm-brodsky/15-minimum-wage-consequences-for-businesses.html>

1억 500만 9,568표, 찬성: 639만 1,753표, 반대: 411만 7,815표)로 지지하였다. 이 법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8.56달러(약 9,000원)에서 2026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약 1만 1,000원)로 인상되며, 이후 매년 1달러씩 상승하여 2026년 9월 30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7년 9월 30일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¹⁵⁾ 이에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8번째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게 되었는데, 최초로 주 헌법을 개정하는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또 남부지역에서는 최초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 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이다.

플로리다주의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해당 법안의 투표와 함께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66만 8,731표(51.2%의 득표율)를 얻어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과는 대비되는 투표 결과이다(바이든은 529만 7,045표를 얻어 47.8%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최소 150만 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을 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당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플로리다주에 기반을 두고 지역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가들은 위와 같은 투표 결과에 대해 노동자가 실제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아젠다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전략을

15) Florida Division of Elections(2020), "Raising Florida's Minimum Wage 18-01",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dos.elections.myflorida.com/initiatives/initdetail.asp?account=70115&seqnum=1>

16) In These Times(2020.11.13), "The \$15 Minimum Wage Won in Florida, But Biden Didn't. Here's Why", Retrieved on November 28th, 2020, <https://inthesetimes.com/article/fight-for-15-minimum-wage-workers-seiu-labor-joe-biden-election>

통해 노동자, 특히나 유색인종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바이든과 민주당은 라틴계 그리고 흑인 위주의 지역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에서도 4년 전 대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¹⁷⁾ 2016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3.2%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33.8%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53.4%를, 도널드 트럼프는 46.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라틴계 인구가 72%, 흑인 인구가 10%, 백인 인구가 15%인 하원의원 선거구 26(Congressional District 26)에서 공화당이 기존의 민주당 의원을 밀어내면서 하원에서 1석을 더 추가하는 등 더욱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대선 및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 특히 유색인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움직임은 이들이 생활수준이나 임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플로리다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법안인 주 헌법 2차 개정안(Amendment 2)이 6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현지 언론의 반응과 분석을 소개하였다. 플로리다주의 사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점으로, 실제로 최저임금 15달러 운동(Fight for \$15)이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어 운동 자체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확산 추세는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KLI**

17) Miami Herald(2020.11.7), 'People believe it,' Republicans' drumbeat of socialism helped win voters in Miami, November 28th, 2020, <https://www.miamiherald.com/news/politics-government/article247001412.html>